

# 세상에 부럼없어라!

## 미래는 창창하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세대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기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된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들이 지닌 나라의 진도는 어두워지게 되고 그들의 모습이 밝고 명랑하면 나라의 미래는 밝아진다.

공화국에서는 후대들이 앞날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후대사랑에 어려어있으며 은혜로운 손길에 의하여 새 세대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르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관심과 배려, 보살핌은 한량없다.

내해 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

공장에서 아이들이 쓸 질 좋은 학습장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보고싶으시여 공장

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공장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뻐하고,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좋아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시며 생산정형을 알아 보시었다.

자동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과 생산능력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공장장에서 울려 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며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나라의 기동감이 될 새대들의 소중한 희망과 꿈이 그려지는 학습장이어서 생산정상화를 그토록 당부하신것이었다.

그이께 있어서 제일 기쁜

때는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고 제일 행복한 때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꽃피어날 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어느날 새로 건설된 평양중학교를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학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설을 시인하게 정말 좋았다고, 평양중학교건물건물을 지나다니며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웃음이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려왔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원아들에게 몇몇이 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 주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며 원아들을 친부모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사려깊

은 정과 세심한 배려에 의하여 전국각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육아원, 교육원들이 훌륭히 꾸려져 원아들이 배움의 나라,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고 나라의 기동감들로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배워주시는 사랑과 배려에는 그들을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어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원산육아원과 교육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벽면에 그려져있는 그림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동화그림뿐 아니라 조선지도도 붙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나라의 지리와 자연에 대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때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도본

아니라 일반자연지도와 동식물분포도, 자원분포도 같은것을 동시에 맞게 잘 만들어붙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원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앞날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사랑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은 참으로 숭고한것이다.

오늘 새세대들이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회악과 전쟁, 분쟁의 희생물로 되고있고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받고 정신육체적으로 타락해가는 참상이 많은 나라들에서 빛 어지고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의 역군으로 돌리며 키워주는 고마운 제도와 정의를 따듯한 보살핌이 있어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근심과 걱정을 모르고 희망에 넘쳐 행복을 누려가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은 나라의 초학교, 중학교들과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 소년회관들에서는 언제나 배움의 종소리, 명랑한 웃음소리, 희망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린다.

학습용품공장, 가방공장, 학습장공장에서 후대사랑의 동음이 그치지 않는다.

후대들을 위하여 나라의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품들여 자제우는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본사기자 리 설

## 교정에 넘쳐나는 녀름의 봄소리

6월 3일부터 공화국의 모든 초학교, 초급 및 고급 중학교들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이날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두에산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새 학년도의 외진 심마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 학년도를 맞아 첫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은 나라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고운 꿈을 피워가는 학생소년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각지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새 학년도를 앞두고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개교준비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

치었다.

교육부에서 교육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 초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다 개선되었으며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경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위치한 김성주초학교에서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초학교였다.

교육부에서 교육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 초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다 개선되었으며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경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위치한 김성주초학교에서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초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초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초학교였다.

우리는 리영렬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특색있게 만든 울타리, 색조화를 맞춰 타일을 붙인 교사의벽, 인공잔디를 번듯하게 깎 운동장, 초학생들의 연령심리특성에 맞게 꾸려놓은 야외학습터...

길 불 안이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그쁘히 갖추어진 교사내부 또한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우리는 후대교육사업을 위해 이곳 교육자들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몇해사이 10월8일모범교수자가 수십명이나 늘어나고 학위소유자가 배추되었으며 많은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 실습기구 및 교편물, 창안중소유자가 되었다는 소식도 호뭇했었다.

새 학년도 교수준비기간에 교원들이 교재연구와 교편물제작을 끝내고 실리라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였는데 이러한 성과가

수업에 도입되면 학교의 교육수준은 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첫 수업을 시작한 1학년 1반 교실에서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글을 읽아가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짜랑짜랑 울리고있었다.

대동문동에 사는 리춘옥녀성은 《우리 딸이 오늘 1학년에 입학하였다. 나라에서 준 멋진 새 교복을 입고 책가방까지 척 척 메고 기쁘서 어쩔줄 몰라하는 아이들을 보느라니 후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뜨겁게 어려와 눈물이 젖어든다.》고 말하였다.

개학날 첫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갈것이라고.

본사기자 홍 범 식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나에게도 어린 자식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소조로 떠밀던 추억이 간직되어있다.

궁전의 총계에 아들의 작은 발자국이 찍히던 때가 엇그레런듯.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진 소조원종을 손에 쥐고 너무 좋아 뽕뽕 뛰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두 팔 벌려 자식을 받기듯 사람들의 마음을 자식처럼 끌어당기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여기에는 컴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이 있는 과학동과 수예소조실, 서예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공금소조실, 선악소조실, 민족악종합연주장, 전자악단합주연주장이 있는 에너지동 그리고 극장, 체육관, 수영관, 합숙을 비롯한 교육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어찌 이뿐이랴. 내 조국의 어디 가나 수풀처럼 솟아있는 소년궁전과 소년회관들마다에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귀여운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맞게 희망의 나라를 활짝 꽃피우고있다.

황홀경을 펼친 궁전들마다에서 새 세대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지혜롭고 발달한 재간들이들로 성장해가는 모습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지울수 없는 인상을 주곤 한다.

《국가의 혜택속에 왕자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나라는 조선뿐이다.》, 《나에게 다시 태어날수 있는 행운이 차례진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고싶다.》...

이 땅의 현실을 대하느라

이 마음껏 지치는 마시영스키장의 초, 중급주로...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아이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의 건축장식에도 민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의 리상과 포부를 담아 멋있게 완성시켜주는 화폭은 이 땅우에서 련속 펼쳐지고 있으니 실로 이 땅은 아이들의 왕국이다.

이런 고마운 품에 안겨 공화국의 아이들이 자란다. 박영진

면 또 하나의 품종적인 특징을 찾아보게 된다.

건축물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 선후대만이 가득 차넘치는것이다.

병원이라기보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육류아동병원이며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갖추어진 평양야동백화점, 어린이수조가 꾸려진 문수물놀이장, 아이들이 키작은 말을 타고 담을 구르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실내승마훈련장, 아이들이 마음껏 지치는 마시영스키장의 초, 중급주로...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아이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의 건축장식에도 민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의 리상과 포부를 담아 멋있게 완성시켜주는 화폭은 이 땅우에서 련속 펼쳐지고 있으니 실로 이 땅은 아이들의 왕국이다.

이런 고마운 품에 안겨 공화국의 아이들이 자란다. 박영진

어디 가나 배움의 꽃대문이 활짝 열려져있고 누구나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일본에서 녹다고 하는 공립대학은 4년간 학비가 수백만위이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40% 더 비싸다고 한다.

그런것조차도 일반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지원기구나 일부 지방, 민간단체들에서 제공되는 대부금을 받아 공부하고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반납해야 함으로 결국에는 졸업하지 못하는 자 많은 빛을 지게 된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학 학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학생 1명당 평균 5만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는 달리 내 갓 돈벌이수단으로 되어버린

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갈 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창 배움의 나이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일본에서 녹다고 하는 공립대학은 4년간 학비가 수백만위이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40% 더 비싸다고 한다.

그런것조차도 일반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지원기구나 일부 지방, 민간단체들에서 제공되는 대부금을 받아 공부하고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반납해야 함으로 결국에는 졸업하지 못하는 자 많은 빛을 지게 된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학 학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학생 1명당 평균 5만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는 달리 내 갓 돈벌이수단으로 되어버린

자본주의사회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배움의 권리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고 돈이 없으면 현대판 문맹자가 되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거는 학비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배움의 꿈과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이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비극적인 사실들이 매일같이 보도되고있다.

일말전 어느 한 나라의 13살 난 중학생소녀가 수십명의 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 이 광경을 목

격한 학생들은 구타를 말릴대신 그것을 촬영하고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 전파시켰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과 《문명》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보려거든 청소년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새 세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때문이다.

우월한 교육제도에서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공화국의 청소년들과 배움의 꿈을 짓밟히고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자본주의나라 청소년들의 불우한 처지는 너무나 대조되는 삶이 아닐수 없다.

과연 어느 사회에 미래가 있는것인가. 석광혁

##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공화국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학령전어린이들을 모두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수립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되었다.

6개 장 58개 조로 되어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였다.

여기에는 탁아소와 유치원 건설, 식량과 식료품, 옷, 신발, 어린이용품공급 등이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여러가지 혜택과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문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보장 및 의복봉사 문제,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대우문제,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교육원의 조직운영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와 조건보장 등에 대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법문화되어있다.

이 법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훌륭한 교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여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법전이다.

본사기자

이 법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돌리는것이 원칙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에는 수많은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어린이영양제공을 위해 전국지사, 군들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가 있다.

공공시설에서는 풍우유,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어린이영양물자들을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하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개발시키며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 튼튼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매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책은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배분되고있다.

본사기자

##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조선의 래일을 보았다

### -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시었던 후대관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이것은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조지 서기장의 찬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나라의 역군으로 부러워하며 자라나는 공화국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은 외국의 한 인사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찬란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민주공공주제사상연구기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어린이들의 왕국인 조선은 아동친화적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훌륭한

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의 어린이건강보호제도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어린이들의 정신육체적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과 보건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정책화하여 실현한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어린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주고 가꾸어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조선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언제나 즐거움에 넘쳐있다. 네 팔신문 《쓰리미끄》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어린이들은 인류의 미래이다. 새 세대들을 사회발전에 참담케 이바지할수 있게 키워주기 위한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반기 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존대하며 우대하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학생기반과 교

복생산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그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조선로동당의 최우선관심사로 되고있다.

하기에 오늘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